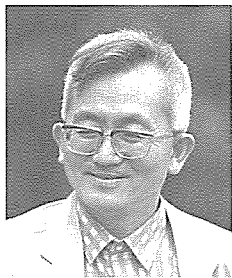




王建의 꿈 해석해준 한국의 프로이트

崔知夢 (907~987)

어려서부터 경전과 역사서를 두루 공부했으며 천문과 복서에 능통했던 최지몽은 18세때 고려 태조 왕건의 부름을 받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었다. 서기 925년에는 왕건의 꿈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삼국을 통일할 조짐”이라 알려주기도 했다. 왕건이 죽은 후 왕실의 권력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별을 보고 점을 쳐 번고를 예측하여 임금의 위난을 미리 막았으며 80세가 넘어 병이 들자 임금이 직접 문병하는 등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朴星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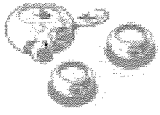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 인문대 사학과 교수/과학사〉

꿈의 해석이라면 누구나 프로이트 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는 인간 심리의 깊은 곳(무의식)이 얼마나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중요한가를 분석하여 연구한 19세기 말의 대표적 과학자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같다. 그의 여러 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집으로 출판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꿈의 해석」(1900)이란 저술도 대표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프로이트’라면 좀 지나친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에도 꿈의 해석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 옛날의 과학자가 있다. 그는 성을 최씨라고 하지만, 아예 이름조차 ‘꿈

을 안다’고 붙여 알려져 있다. 최지몽(崔知夢, 907~987)이 바로 그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이름이 처음부터 ‘지몽’은 아니었다. 그가 꿈 해석에 능하다 보니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름으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원래 이름을 총진(聰進)이라 했던 그는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靈巖)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원보(元甫) 상흔(相昕)이라고만 「고려사」에 적혀 있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에 완성된 고려시대의 가장 상세한 대표적 역사서다. 이 책은 정통 역사서가 그렇듯이 거의 3분의 1 분량이 고려시대 활약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로 되어 있다. 좋은 일을 한 사람만 있



는 것이 아니라 간신과 반역자 까지 모두 중요한 인물을 골라 그 일생을 기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최지몽은 고려 초기의 인물 가운데서는 드물게 긴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 당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경전과 역사서를 두루 공부했는데, 특히 천문과 복서에 밝았다. 천문과 복서(卜筮, 점치기)가 서로 통하던 것이 당시 사정이었음은 알려진 일이지만, 그런 그가 꿈의 해석에도 통하고 있었다는 것은 꿈의 해석이란 역시 복서의 일부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그는 일찍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 18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왕건의 부름을 받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다는 기록이다.

아마 925년쯤의 일일 것이다. 왕건이 고려 왕조를 개창한지 7년쯤 뒤의 일이지만,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건으로서는 아직 후삼국의 나머지 두 나라--견훤의 후백제와 신라--와 각축하고 있을 시기였다. 이때 왕건이 꾸었다는 무슨 꿈인가를 해석하게 된 최지몽은 그것이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조짐이라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다.

태조 왕건이 '知夢' 이름 내려줘

왕건의 꿈 내용이 무엇이었던가를 지금 알 길은 없다. 여하튼 삼국 통일의 영웅이 될 조짐이라는 꿈의 해석에 왕건이 기뻐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감격 때문에 고려 태조

왕건은 그에게 '지몽'이란 이름을 내렸고, 비단 옷은 물론이고, 공봉직(供奉職)에 임명하여 그 후 궁궐 가까이 그를 머물게 하며 온갖 것들에 대해 그의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임금의 학술담당 최측근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왕건이 죽은 다음에도 그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태조 왕건이 죽은 바로 2년 뒤인 945년(혜종 2)의 일이었다.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나 왕실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 초에만 '왕자의 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왕조가 새로 시작하면 첫 임금이 죽자 바로 여러 왕자와 세력 사이에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943년 5월 왕건이 죽자 제2대 임금으로 즉위한 첫째 왕자는 혜종(943~945 재위)인데, 2년만에 이상하게 죽었다. 그리고 다음 왕위를 이은 셋째 왕자(즉 정종, 945~949 재위) 역시 4년을 채우지 못하고 24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말았다.

2대 혜종의 죽음에 대해서 「고려사」는 그가 945년 9월 병으로 죽었다면서, 당시 신하들은 임금을 들어가 만나지도 못하고, 소인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임금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대 임금 정종은 20에 임금이 되어 24세에 죽었는데, 병이나 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었다고만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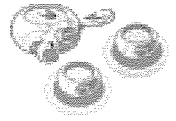
도대체 멀쩡하던 젊은 임금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믿기 어렵다. 사실 태조 왕건을 도와 세

왕조를 세운 지방 토호들은 이미 왕건 자신과 결혼으로 그들의 연합 관계를 튼튼히 하고 있었고, 그 연합관계의 표현으로 왕건은 그들 지방 토호들의 딸을 정식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맺은 왕비와 부인이 자그마치 29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왕건이 죽자 이들 지방 토호와 왕비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력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반역 때마다 왕에게 미리 알려

이런 가운데 최지몽은 945년 혜종이 죽던 그 해에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유성(流星)이 자미(紫微)를 범했으니, 나라에 반드시 역적이 있을 조짐"이라 했다. 당시의 역사 책에는 이것이 당시 왕위를 찬탈하려 하던 세력의 대표격인 왕규(王規)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왕규는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으로 그의 딸들을 태조에게 바쳐 태조의 제15왕비와 제16왕비가 되었다. 특히 제16왕비에게서는 왕자가 태어났으니, 그 이름은 광주원군(廣州院君)이다.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혜종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미리 예측하여 유성의 조짐으로 보고한 최지몽은 혜종으로부터 더욱 신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최지몽은 또 다시 점을 쳐서 변고를 예측하고 임금에게 몰래 거처를 옮기라고 권고했다. 정말로 그날 밤 왕규가 임금을 해치려고 침실의 벽을 뚫고 들어왔으나 이미 임금은 자리를 피하고 없었



다. 이렇게 최지몽은 고려의 제2대 임금 혜종을 점을 쳐서 보호했던 것으로 전한다. 태조에게 꿈을 해석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었으나, 비슷한 재주를 발휘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시 980년(경종 5) 최지몽의 예언이 다시 위력을 발휘한다. 그 해 그는 임금에게 아뢰기를 “객성(客星)이 제좌(帝座)를 범했으니, 임금께서는 지키기를 더욱 튼튼히 하여 변고에 대비하소서!” 하였던 것이다. 정말로 그 해에 왕승(王丞)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임금은 최지몽에게 어의(御衣)와 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사했다.

또한 ‘대광 내의령’(大匡內議令) ‘동래군후’(東萊郡侯)에다가 식읍 천호를 받은 ‘주국’(食邑千戶柱國)이라는 겹치기 영예와 상도 내렸다. 그 후에도 그는 여러 가지 표창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987년 병들자 성종 임금이 직접 문병을 하기도 했다. 죽은지 7년 뒤인 994년에는 경종의 사당에 배향되는 영광을 얻었다.

최지몽에게는 민휴(敏休)라는 시호도 내려졌다. 그를 ‘민휴공’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간단한 사당이 남아 있어, 그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영암이라는 이름을 얻게 해준 신령스런 바위가 있다는 호남의 명산 월출산(月出山)의 서쪽에는 도갑사(道岬寺)가 있다. 그리고 이 도갑사에 이르는 길목 구림 마을에서는 최씨들이 그들의 선조인 최지몽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 놓은 것이다.

하기는 이 마을이라면 최지몽 못지 않게 유명한 인물이 바로 그보다 조금 선배라 할 수 있는 한국 풍수지리의 창시자 도선(道詵, 827~898)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최지몽을 모신 사당 옆에는 국사암이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도선의 어머니가 처녀로서 오이를 먹고 낳은 아이 도선을 몰래 버린 곳이라고 전한다.

고려 초 정치갈등 속 중요 역할

전설에 의하면 도선의 외할아버지가 최씨였다니, 도선과 최지몽은 같은 마을 출신의 같은 집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1세기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유념해 연구해 볼 과제란 느낌이다. 여하튼 고려 초 이 분야 역사에서는 단연 최지몽을 따를 인물이 없다. 그는 어려서 대광(大匡) 현일(玄一)에게서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광 자리에 있었던 현일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름으로 보아 승려였을 것같은 인상을 느낄 뿐이다.

최지몽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현동(玄同)과 회원(懷遠)이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들에 대해서도 더 알 길이 없다. 또 광종 임금때 임금을 따라 귀법사(歸法寺)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실수하여 외걸현이란 곳에 유배가게 되어 11년동안 거기 살다가 980년(경종 5)에 풀려나 소환되었다는 것인데, 그가 어떤 실수를 했기에 그리도 오랜 동안 유배당한 것일까? 이 또한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고려사」의 다른 곳에 보면 광종이 귀법사에 행차한 것은 970년(광종 20)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귀법사란 사찰은 광종이 그보다 7년 전인 963년(광종 14) 7월에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여기에 그 유명한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하여 빈민구제와 서민들의 질병 치료 등을 담당하게 했다. 우리 역사상 초기의 사회사업기관을 두었다고 할 만하다. 최지몽은 이 절에 임금을 따라 갔다가 술을 마시고 어떤 실수를 했다는 말이다. 여하튼 그는 광종 일대에는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귀양살다가 광종이 죽고 경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5년이 지나서야 풀려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소개한 것처럼 그가 풀려난 경종 5년의 이 기록에 이어서 「고려사」는 왕승의 반란 사건과 그들에 대한 처벌 기록이 따르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는 최지몽의 재등용은 그 반대 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 시기 역사 기록은 너무나 영성하여 모두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최지몽은 화려하게 재등장하면서 다음 임금인 성종 때에는 더욱 융성한 대접을 받다가 죽었다. 그리고 성종시대는 바로 광종 때에 일단 밀려났던 옛 신라 세력과 일부 호족 세력이 다시 힘을 떨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지몽은 그런 고려 초의 정치적 갈등과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했던 정치가이며, 꿈의 해석자, 그리고 천문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㉟